저탄소 농산물 인증 3275㏊…4위→1위 껑충

지난해 1660㏊→올해 3275㏊ 선정, 전국 77% 점유
전북·경북·충북 제치고 1위…신규 인증 64%가 '벼'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이 1년 새 전국 4위에서 1위를 껑충 뛰어올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올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으로 4714㏊를 신청, 이 가운데 3275㏊(69.5%, 141건)가 최종 선정됐다. 벼가 64%로 가장 많고, 고구마와 배도 각각 4%씩이다.

신청 규모만 놓고 보면 전국의 80%, 선정된 규모는 77%에 이른다.

이로써 전남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예상면적은 기존 1660㏊를 더해 총 4935㏊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전북, 경북, 충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단숨에 1위를 올라섰다.

시·군별로는 신안 473㏊, 나주 314㏊, 강진 248㏊, 해남 212㏊, 진도 198㏊, 함평 191㏊, 고흥 180㏊ 등이다.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탄소배출 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8월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저탄소 농산물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라며 "앞으로 ESG경영 기업,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 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전남,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본격화

전남도가 광양만권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반도체, 기능성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산업단지 108개소 중 98%가 분양완료돼 신규 산단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396만㎡ 규모, 1조200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적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최근 동부본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자문회의를 열어 산단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남도 산단개발과를 비롯해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단 개발 구상 ▲기반시설 공급방안 ▲입주 수요와 경제성 ▲전략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협의했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소재산업 육성전략, 지역개발 연계방안, 수요·경제성 분석, 앵커기업 유치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해 국가산단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첨단소재 분야 기업 117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 산단 개발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실전 같은 훈련 전남도가 지난 15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안전하고 성공적 행사 지원을 위해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전남도 제공

"광천터미널 복합화 민간투자·행정 협력 절실"

광주상의, 신세계 광천동 일대 복합개발 관련 입장문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16일 광주 유스퀘어 일원에 추진 중인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관련해 "민간 투자와 행정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업은 광주에 있어 두 번째 기회"라면서 "2015년에도 신세계가 광천동 일대에 복합개발을 제안했지만, 행정 절차와 협의 부족으로 무산돼 결국 대전으로 이전, '신세계 Art & Science'라는 프로젝트로 실현된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신세계그룹이 단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개발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과거 약 2조 원이 투입된 부산 센텀시티 사례와 비교해도 광주에 대한 신세계의 장기적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광주신세계는 2024년 10월 광주시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공공성 확보와 행정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는 사업이 더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광주상의는 "현재까지 본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광주가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청년 유출, 소비 침체, 투자 위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는 도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광주시와 관계기관이 협의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광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공공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계는 지역사회와 함께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

"시민 식수원 화순 동복댐 관광개발 반대"

광주시의회 반대 입장…김영록 지사, 환경부 장관에 제안

김영록 지사가 환경부에 화순 동복댐 주변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1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행정구역상 관할권을 근거로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니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 식수원이 달려있는 생존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역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동복댐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원으로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선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제안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바, 적법성 이전에 신뢰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제안은 양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환경부는 실질적인 수질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수질 보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는 식수원인 동복호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화순 동복댐 주변 박물관 및 전시공간, 관광객을 위한 카페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도기 기자

22일 지구의 날, 광주시청 앞 차량 통제

텀블러·플라스틱 용기·종이팩…음료·물비누 교환

광주시가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관공서 소등 행사 등을 펼친다.

광주시는 21일부터 25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지구의 날 기념식,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2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지구의 날 기념식은 19일 시청 앞에서 광주지역 70여 환경단체와 유관기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지구의 날 경과보고, 대자보도시 시민실천단 위촉장 수여, 슬로건 시민공모 시상,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한다.

이어 자전거대행진, 어린이그림대회, 어린이자원순환장터, 게임존 등이 펼쳐진다.

전시 체험부스에서는 에너지·자연환경·녹색건강·자원순환·녹색교통존 등 5가지 주제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텀블러와 플라스틱 용기, 종이팩을 가져오는 시민에게는 음료와 물비누,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지구의날 행사가 열리는 시청 앞 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조선주 기자

재정지원 사회기업 132곳·예비마을기업 12곳 지정

전남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132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과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설립 희망 법인·단체의 공모를 통해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실사와 실무위 발표 심사 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재정지원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군 특화사업 ▲시설장비 등 4개 분야 총 132개 기업에 18억4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분야는 21개 기업에 61명의 고용을 지원한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